

멕시코 공적채무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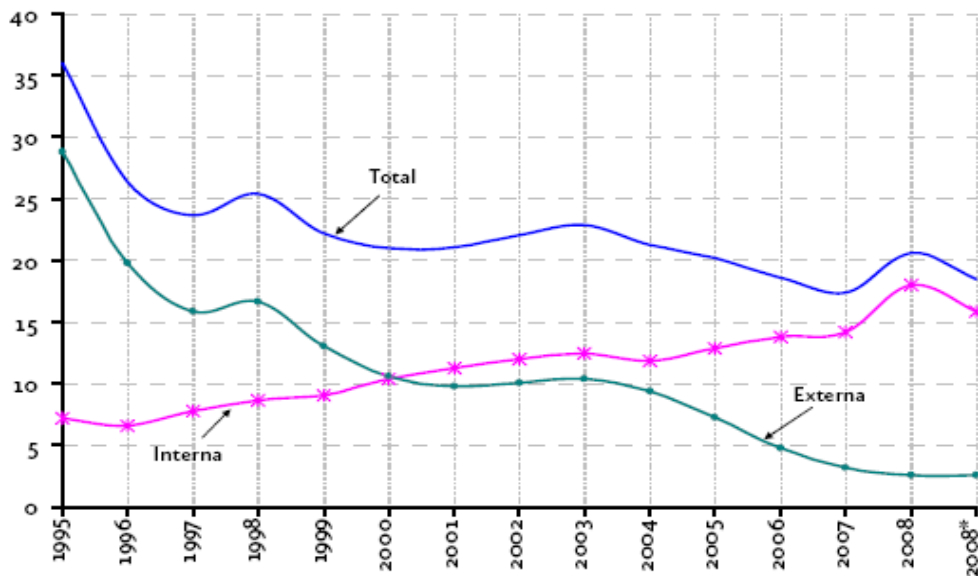
1. 멕시코 모라토리엄 가능성

-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멕시코에 대한 JP Morgan의 EMBI+(신홍시장채권지수) 인용을 통해 멕시코의 국가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
-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 위험지수는 신홍시장 채권과 미국 국채에 대한 스프레드로 국가부도위험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며, 현재 멕시코의 EMBI+도 312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지수(604) 대비 52%가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
- 참고로 멕시코의 동 채권지수는 현재 아르헨티나(1756), 브라질(381), 베네수엘라(1308), 우크라이나(1848), 러시아(458) 등 신홍시장 여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중남미(609), 아프리카(369), 유럽(476), 아시아(425) 등 지역별 평균 지수 대비 크게 하회
- 또한 멕시코에 대한 국제신용기관 평가등급도 피치(BBB+), 무디스(Baa1) 및 S&P(BBB+) 등 투자등급이내에 있는 등 여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자국의 모라토리엄 가능성 제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언급

2. 멕시코 정부의 공적채무 관리 현황

- 과거 멕시코는 과도한 공적채무(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등)로 인해 세계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치명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지난 1995년 외환위기의 교훈을 통해 이후 정부의 대외채무 의존도 감소 노력과 대내채무 상황 개선으로 오늘날 동국의 공적채무는 전혀 우려의 대상이 아님. 특히 대내채무의 경우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장기 채권 발행(30년)이 가능함에 따라 안정적 채무관리가 가능
- 이에 따라 동국의 공적채무는 1996년 이후 현저히 감소했는데, 특히 GDP 대비 대외채무의 비율이 1995년 28.8%에서 2008년 2.6%로 대폭 감소, 반면, 국내 자금 조달 개선으로 대내채무는 7.2%에서 15.9%로 증가 1)

멕시코의 GDP 대비 순 공적채무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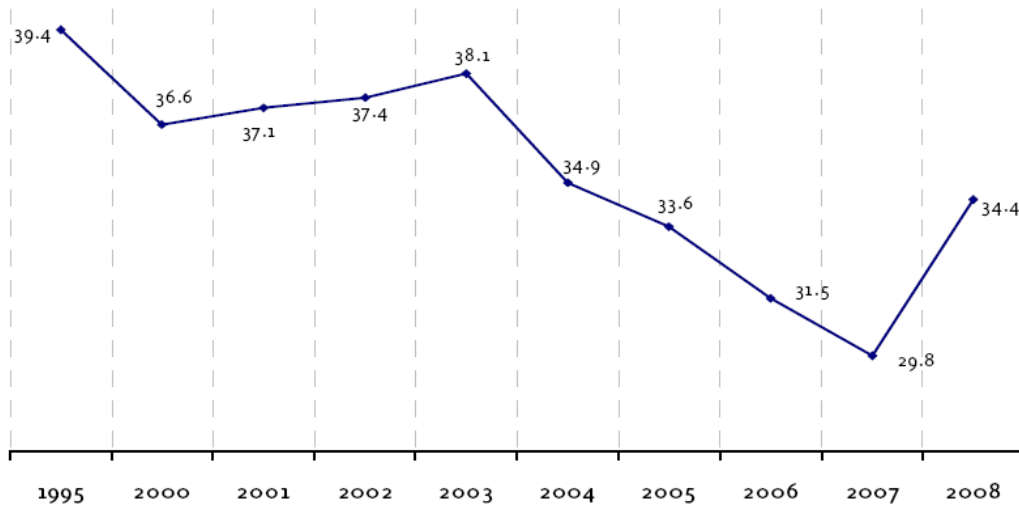
* 2008년 공무원 연금기금 개혁 소요비용 불산입의 경우

자료 : 멕시코 재무부

1) 순 공적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1995년 36%에서 2008년 20.6%로 감소

- 정부의 직접 차입이 아닌 기타 채무(페멕스 석유기금 등 공공기금의 채무)를 고려하더라도 멕시코 공공부문 차입 소요금액도 1995년 GDP 대비 39.4%에서 2007년 29.8%로 감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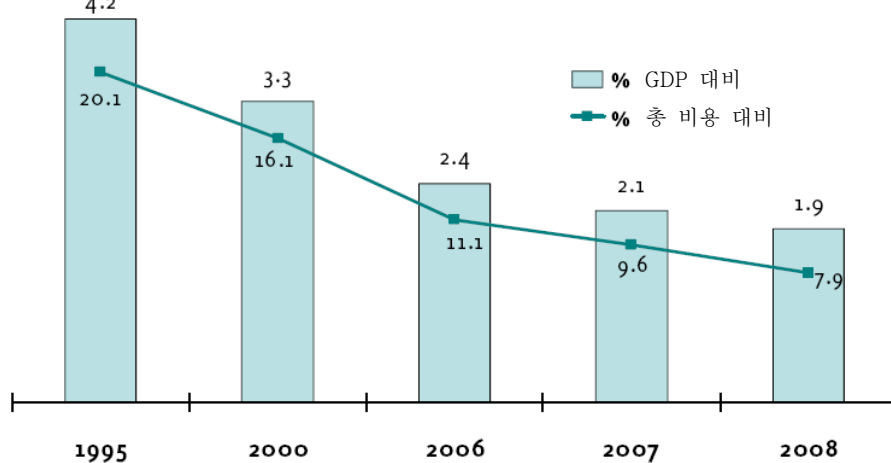
연도별 GDP 대비 공공부문 차입소요 비율 추이



자료 : 멕시코 재무부

- 이에 따라 정부의 금융비용도 감소하는 한편, 공공금융의 강화를 가능케 했는데, 참고로 금융비용의 경우 1995년 정부의 금융비용 지급규모는 GDP 대비 4.2%에서 2008년 1.9%로 절반 이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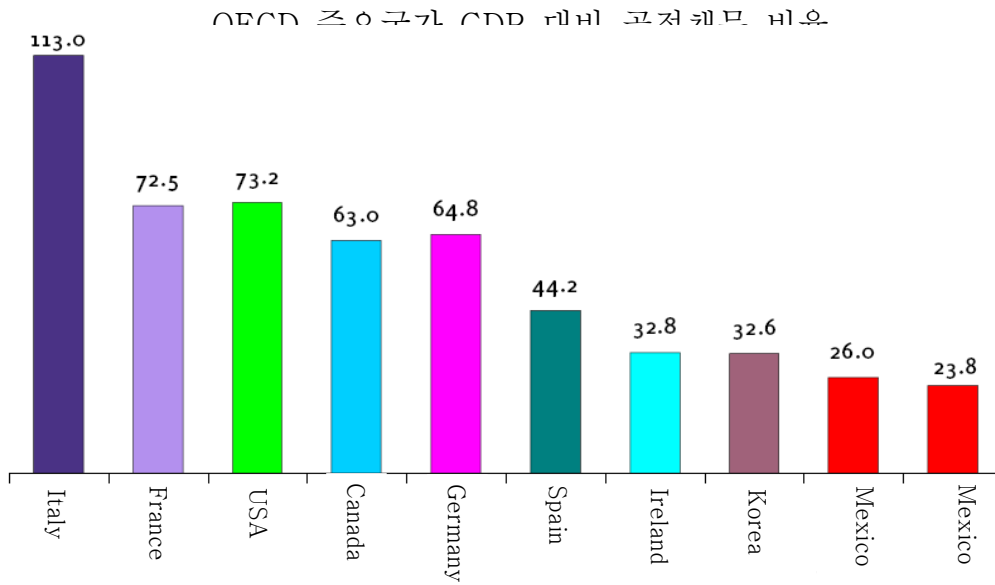
GDP 대비 공적채무 금융비용 비율 추이



2) 2008년 경우 공무원연금기금 개혁과 페멕스 정유설비, 전력청 발전설비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 환율 상승에 따른 대외차입금 증가 등으로 동 비율은 4.6%p 상승한 34.4% 기록

자료 : 멕시코 재무부

-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성공적인 국가채무 관리로 현재 멕시코의 GDP 대비 대외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주요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



자료 : 멕시코 재무부

< 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 >